



롯데, 롯데월드 전체대관하고 임직원 가족 초청

롯데가 지난 17일 잠실 롯데월드 전체를 대관해 ‘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을 열고, 그룹 임직원과 가족 1만 5000명을 초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직원을 위해 롯데월드 전체를 대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



세븐일레븐, ‘모두하나대축제’서 한부모가족 지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난 18일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모두하나대축제’에 참여해 한부모가족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행사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한부모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세븐일레븐



한미그룹, 창립 52주년 기념 ‘빅 하트 봉사주간’

한미그룹이 올해 창립 52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역사회에서 ‘빅 하트 봉사주간’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한미그룹 법정 창립일은 1973년 6월 15일이지만 한미그룹은 첫 번째 제품 ‘TS산’을 출시한 10월 첫째 주 토요일을 공식 창립일로 정해 기념한다. ‘이번 봉사주간에는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500여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미그룹



유한재단, ‘제34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 열어

유한재단은 지난 17일 서울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제34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간호부문에서 수상한 (왼쪽부터)김지현 렉스과천치과 간호실장, 황관옥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감사,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 민정숙 홍익병원 행정위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BNK경남은행-HD현대 ‘글로벌 상생 데이 행사’

BNK경남은행은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와 공동으로 ‘글로벌 상생 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BNK경남은행 임직원과 가족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및 사내협력사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총 500여명이 참가했다. /BNK경남은행

구자열, 日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

(LS그룹 이사회 의장)

민간 외교관으로 경제협력 이바지
고려대와 국제 교류 확대 기여도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LS그룹은 구자열 의장이 지난 18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아이즈야이치 기념박물관에서 열린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다나카 아이지 총장 등 와세다대 관계자와 김동원 총장, 승명호 교우회장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LS그룹 임직원, 구 의장의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와세다대는 구 의장이 한국무역협회장과 세토포럼 이사 등 민간 외교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지난 18일 와세다대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관으로서 한일 경제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고, 제33대 고려대 교우회장, 발전위원장 등을 맡아 양교 간 국제 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명예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학위는 기업 경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탁월한 공로를 남긴 인물에게만 수여되는 특별한 명예다. 특히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인 고려대와 와세다대가 오랜 기간 자매결연 관계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만큼, 고려대 동문인 구 의장이 와세다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은 더욱 뜻깊은 일로 평가된다. 앞서 이 학위를 수여한 인물로는 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故 이건희 삼성전대회장,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등이 있다.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 총장은 “구자열 의장은 LS그룹을 전 세계 25개국 100여 곳에 현지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도맡아 일본 정·재계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일 경제 협력 강화에 현저한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답사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은 양교의 신뢰와 교류를 상징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나아가 한일 양국의 모범적인 리더가 되어 달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받은 학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양국의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인니에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
브카시 주민 대상 환경교육 등 수행

현대차,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지역주민 주도형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브카시에서 ‘지역주민 주도형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생산공장이 위치한 브카시에 지난 2022년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개소하는

등 현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자원순환시설은 지역주민 대상 환경 교육, 굿즈 제작과 함께 폐플라스틱 수거, 세척·분쇄, 재생 원료 생산·판매 등을 수행한다. 지역주민협동조합이 시설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수익금은 자원순환시설에 재투입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지역주민협동조합 구성과 인력 채용, 운영 교육 등을 맡고 현지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 기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리사이클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BGF리테일, 편의점 금융서비스 확대

나이스인프라와 ‘맞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나이스인프라와 ‘금융 특화 서비스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6일 BGF리테일 오정후 전략혁신부문장, 이현석 나이스인프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CU의 점포망과 나이스인프라의 금융기술력을 결합해 편의점의 생활 금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금융서비스 차별화 및 ATM 확대 ▲키오스크 등 무인 운영 서비스 확대 ▲보안 솔루션 연계 ▲공동 마케팅 협업 등이다. 양사는 5년 내 ATM 운영 대수를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카드나 통장을 발급할 수 있는 기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전용 선불카드 종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점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 자판기 등 무인



BGF리테일 오정후 전략혁신부문장(왼쪽)과 나이스인프라 이현석 대표이사(오른쪽)가 MOU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GF리테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CCTV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 구축, 양사 앱을 연계한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오정후 전략혁신부문장은 “지근거리 소비 플랫폼인 편의점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 밀착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BGF리테일은 앞으로도 오프라인 최다 점포 네트워크에 기반한 차별화 서비스들을 지속 개발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지난 18일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2025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애경산업

애경산업, 다양한 가정과 연대감 나눠

‘제2회 어울림 체육대회’ 진행

애경산업이 지난 18일 경기 광명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제2회 어울림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협력해 다양한 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정, 미혼모·한부모 가정, 지역아동센터, 보육 시설 등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

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하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주사위 릴레이, 바구니 썰기, 링 던지기 등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추억을 쌓았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구성원 간의 따뜻한 연대감을 나누는 것은 물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우리’라는 이름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진이엔티, ‘KOOM 2025’ 공식 후원

콘텐츠 제작 파트너로 참여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K-컬처 페스티벌 ‘KOOM(꿈) 2025’를 공식 후원했다.

KOOM 페스티벌은 지난(현지시간)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Duggal Greenhouse)에서 열렸다. 유진이엔티는 콘텐츠 제작 파트너로도 참여했다.

KOOM 페스티벌은 미국 한인 창업자 네트워크 ‘UKF(United Kore

an Founders)’가 주최하는 행사로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 대한항공 등 국내외 주요 정부기관과 기업이 함께 후원했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유진이엔티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후원을 넘어 K-컬처와 K-스타트업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여정을 담은 콘텐츠 제작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 외교통·대사 △주중국대사 노재현
- ◆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 ◆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옥

부음

- ▲이중기씨 별세(향년 100세), 이영규(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씨 모친상=15일 오후 8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101호(서문시장앞), 발인 17일 오전 8시, 구미 선산 선영. 053-250-8451